

[1] 부활절부터 11월 1일까지는 위에 말한 시편의 수를 다 지킬 것이나, [2] 밤이 짧기 때문에 책에 있는 독서들은 읽지 말고 이 세 독서 대신에 구약성경에서 하나의 독서를 암송하고 이어서 짧은 응송을 바칠 것이다. [3]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위에 말한 그대로 채울 것이니, 즉 <야간기도>에 시편 제3편과 제94편을 제외한 시편의 수를 절대로 열두 편 이하로 하지 말 것이다.